

# 자연과의 접촉공간 조성에 관련된 일본의 시책 · 사업에 관한 연구

배 현 미

대구대학교 조경학과 강사

## A Study on the Policies and Projects for the Creation of Areas for Close Contact with Nature in Japan

Hyun-Mi Ba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aegu University.

### ABSTRACT

Nowaday special attention is being paid to the conservation of all species or ecosystems of sites for public projects. Many environmental conservation policies and projects in Japan emphasize the coexistence of man with nature and close contact with natur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olicies and projects for the creation of areas for the close contact with nature in Japan, to characterize change of techniques for the space creation over times, and to classify those policies and projects implemented by many government agencies. This study was mainly carried out by literature survey of laws, policies and projects related to environmental conservation pertinent to national scal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wo most significant turning points for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 Japan were the establishment of the Office of Environmental in 1971 and the enactment of many laws influenced by the awareness of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since 1990.

Second, polices and projects for the creation of areas for the close contact with nature started in 1960s by the Office of Forestry, and focused on planting and development of simple facilities in forests. And the conservation of natural environment, ecological restoration and the expansion of urban green spaces, and the creation of biotopes and other areas for the close contact with nature in urban areas were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 Japan during 1970s, 1980s, and 1990s, respectively.

Third, policies and projects related to this topic could be classified into nine types: planting of project sites, restoration of waterfronts, restoration of specific species such as firefly and dragonfly, wildlife conservation based on vegetation protection, establishment of biological corridors, restoration of rural landscape, theme parks for the close contact with nature, creation of biotopes in urban areas, and others.

Fourth, spaces number of plans and projects for the creation of close contact with nature increased very rapidly during 1990s.

Finally, spaces for the close contact with nature in 1960s were mainly implemented by the Offices of Forestry, but recently those spaces have been created in urban areas by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he Office of Environment.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최근 하천, 도로 등의 공공사업이나 광역의 지역정비, 농촌지역, 공원조성에 있어서 그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이나 생태계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6.25 이후 국토의 복원과 발전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자연환경이나 생물의 보호보다는 개발과 합리성이 우선되어져 토지이용이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그 후 개발이 사람들의 생활환경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인식이 들면서부터 뒤늦게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1992년에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측면에서 리우선언도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적인 안정을 얻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생활 속에 풍요로움과 정신적인 윤택함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인간 이외의 생물과 공존을 배려하는 여유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를 배경으로 지역개발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개발과정에서 절멸위기에 처해 왔던 생물이나 생태계의 소중함에 눈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즉 자연과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공간확보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일어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 그

예로서 우리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과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으며, 또 자연환경에 대한 향수와 필요성의 인식으로 인해 자연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관심과 조성이 요청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부응하여 정부에서도 환경보전위원회를 1996년 8월 개최하여 '녹색환경의 나라건설을 위한 실천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녹색환경의 나라를 건설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21세기 환경모범국가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본 과제는 이상과 같은 국내외적 동향에 힘입어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환경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배경으로, 경제·사회·문화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은 이웃나라 일본의 관련시책과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자연과의 접촉"공간 조성에 관련된 시책·사업에 관한 기존자료의 해석과 정리 및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된 과제이다.

자연관련제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로는 1980년대에 진행되었던 白井彦衛(1980)의 "도시의 녹지보전思潮에 관한 연구", 김승환(1986)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 김승환(1989)의 "일본의 자연환경보전思潮 및 관련제도의 변천에 관한 연구",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김경영(1997)의 "경관행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이들 논문에서 보면 "인간과 자연과의 관

계”, “도시와 산지의 자연환경의 교류” 등이 근간의 동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연과 인간과의 직접적인 교류나 접촉을 위한 공간확보에 대한 실제적인 제도의 제시와 현재의 변화추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1990년대에 보여지고 있는 관련제도 및 사업의 급격한 변화와 증가성향에 대한 조사와 분석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고려한 사업수립 및 계획, 추진을 위해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인간과 자연이 접촉할 수 있는 공간제공이라는 측면에 착안하여, 이에 관련된 제도 및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 1) 일본의 “자연과의 접촉”공간 조성에 관련된 시책·사업의 전개에 대한 소개
- 2) 관련사업의 시기별 특성과 공간조성의 동향의 파악
- 3) 소속 관청의 시책개요 및 사업의 관계 분석 및 변천동향
- 4) G-7 프로젝트 추진방향의 설정 및 국외의 동향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의 활용에 있다.

##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각 관청이 주관하는 자연환경 보호·보전 및 자연과의 접촉공간 조성에 관련된 시책·사업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자료의 수집은, 임야청, 환경청, 건설성, 농수산부, 운수성, 수산성, 문화부, 문부성, 후생성, 郵政局 등과 건설성 도시국 공원녹지과 도시녹지대책실의 사업계획서 및 보고서 등의 문헌과 담당자면담을 통한 Hearing을 수행하여 분석의 근거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관련시책·사업의 계획 및 보고서의 내용을 조사, 검토하여 “자연과의 접촉

(自然とのふれあい)”을 “사업목적”으로 明記하고 있는 시책·사업을 162개 선별하여 본 연구진행의 조사 및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단 시책·사업의 대상지역이 일본 전국규모인 것만을 선정하였다.

대상기간은 終戰후 부흥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국토종합개발법의 공포(1950), 문화재보호법(1950)의 제정, 삼림법(1897, 農商務省)의 大改正(1951, 林野廳) 등이 이루어지는 1950년 초기부터 현재까지로 설정한다.

본 연구의 진행은, 자연환경 및 자연의 보호·보전과 관련된

- ① 규제 및 법규 등의 조사
- ② 관할관청의 사업의 조사
- ③ “자연과의 접촉”공간 조성에 관련되는 시책·사업에 대한 조사와
- ④ ③을 기초로 한 자료의 분석과 평가의 순서로 진행한다.

## II. 분석 및 결과

### 1. 자연환경의 보호·보전에 관한 규제 및 법규

일본에 있어서 자연환경의 보호·보전에 관련된 규제와 법규를 도시계획연람, 도시녹화연보, 자연보호연람 등을 참고로 하여 정리한 것이 표 1 이다.

이상 자연환경의 보호·보전에 관한 법규의 제정경향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1971년 환경청 설립이전의 단계로, 토지이용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지구·구역의 제한을 위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 단계는, 환경청의 설치(1971년) 및 자연환경보전법(1972년)이 제정되는 1970년대이다. 이 시기에는 귀중한 자연이나 중요한 환경의 보호와 보전이 추구되었던 시대이다.

세 번째 단계는 1990년대로, 지구의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로 자연과의 공존추구가 최종의 목표로 환경기본법(1993

표 1. 자연환경의 보호·보전에 관한 관련법규

연도	자연환경의 보호·보전에 관한 관련법규
1950	국토종합개발법
1950	문화재 보호법(문화청)
1951	삼림법 大改正(1897년 農商務省에서 임야청)
1951	수산자원 보호법
1952	농지법
1955	하천법
1955	사방법
1957	자연공원법(후생성)
1962	도시의 미관풍치를 유지하기 위한 수목의 보존에 관한 법률
1966	古都에 있어서 역사적 풍토 보존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7	수도권 근교 녹지 보전법
1967	수도권의 보전구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1968	도시계획법
1969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1971	환경청 설립
1972	자연환경 보전법(환경청)
1973	도시녹지 보전법(건설청)
1974	생산 녹지법
1977	환경보전 장기계획의 제정
1987	야생생물 양도 규제법
1992	절멸의 위험이 있는 야생동식물의 種의 보존에 관한 법률
1993	환경기본법
1993	도시공원법의 개정
1994	환경기본계획
1994	환경정책대방
1994	森林의 보전기능의 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5	생물 다양성 국가전략(1992. 세계 생물 다양성 조약)
1996	세계 유산 조약
1997	하천법의 개정
1997	환경영향 평가법

(도시계획연람, 도시녹화연보, 자연보호연람 등을 참고로 필자가 작성)

년)의 제정 및 생물 다양성 국가전략(1995년) 등의 도입이 이루어 지며 새로운 사상을 기초로한 환경영향평가법(1997년)의 제정이 이루어지는 현 시점을 포함한다.

## 2. 자연의 보호·보전에 관계하는 관할관청의 사업

자연보호·보전에 관한 주된 관할관청은 환경청이며, 그 중 자연보호국에서 관련사업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가운데 자연과의 접촉공간 조성에 관련된

사업을 살펴본 결과 환경청을 시작으로 임야청과 건설성, 농림수산성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대상지 및 대상물에 따라 농수산성, 운수성, 문부성, 후생성, 수산성, 문화성, 우정국 등에서도 참여하고 있다. 그 중에서 환경청 자연보호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자연보호시책의 개요와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자연보호국의 역할은 크게 자연환경의 보전과 이용, 야생생물의 보호, 국민공원 등의 유지관리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 그 중에서 본 연구의 주요관점대상인 자연과의 접촉공간의 조성은 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이용',에 포함되는 '가까운 자연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시책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연의 보호는 지역지정, 행위 규제, 보호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자연의 이용은 시설의 정비,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과 친숙해지기 위한 활동의 추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환경청의 기본 취지이다. '가까운 자연의 보전과 이용'에 대한 사업유형 및 기본 취지는 다음과 같다.

### 1) 장거리 자연보도 (長距離自然步道)

국민이 널리 자신들의 발로 자연 및 사적지 등을 방문하여 보는 것에 의해 건전한 심신을 육성하고 자연보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청이 노선을 결정하며, 都道府縣이 환경청의 보조사업에 의해 1970년부터 정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東海, 九州, 中國, 수도권에 자연보도가 완성되었으며 1990년부터는 東北 자연보도의 정비도 진행되고 있다.

### 2) 자연관찰의 숲 (自然觀察の森)

자연손실이 현저한 대도시 및 그 주변에 있어서 신변에서 자연과의 접촉을 요망하는 국민의 요청에 부응코자 3대 도시권 및 政令지정도 시 등에서 가까운 자연과의 접촉을 추진하기 위한 거점을 시범적으로 정비한 것이다.

환경청의 보조에 의해 市町村이 시설정비를 하며, 전국에 10개소가 있다.

3) 고향생물과 접촉할 수 있는 마을 (ふるさといきものふれあいの里)

주변의 자연이 남겨져 있는 지역 등에서 동식물의 서식·생육환경의 보전을 위한 시설이나 자연과 접촉하기 위한 시설을 정비하여, 자연교육의 거점으로서 이용하는 것이다.

都道府縣 또는 市町村이 환경청의 보조사업에 의하여 조성하며, 현재까지 규모가 큰 광역정비형이 3개소, 단독정비형이 6개소가 정비되어 있다.

4) 환경과 문화의 마을 (環境と文化の里)

1992년부터 ‘고향생물과 접촉할 수 있는 마을’의 광역형 정비내용을 확충 할 목적으로 착수한 것이다. 이것은 종래의 ‘생물접촉의 마을’의 정비·운영방침에 부가하여 인간의 경영과 자연환경과의 조화, 즉 ‘환경에 부드러운 문화의 창조’라고 하는 Concept를 첨가시킨 것이다. 2차림을 활용한 숲 만들기 및 휴반죽 체험의 장소 등 자연관찰의 장소와 병행시켜 정비하거나, 무농약 및 쓰레기 재활용 등 지역의 조직과 일체가 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는 지역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정비는 환경청의 보조를 받아 都道府縣이 시행하며 현재 3개소가 있다.

3. “자연과의 접촉” 공간 조성에 관련되는 시책·사업에 대한 조사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관련 시책·사업의 계획 및 보고서 내용을 조사, 검토하여 “자연과의 접촉 공간(自然とのふれあい)”을 “사업목적”으로 明記하고 있으며 대상지역이 전국규모인 시책·사업을 선별하였다.

“사업목적”에, ①자연과의 접촉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것, ②주된 사업목적에 부수하여 자연과의 접촉을 위한 장소를 정비하는 것, ③지역진흥 등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자연과의 접촉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책·사업을 선정한 결과 162개의 관련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사업이 완료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상사례의 사업명, 소속관청, 개시연도, 대상지, 사업목적, 내용의 개요 등을 조사하여, 그 중 사업목적과 개시연도를 분류,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표 2. 시책·사업의 목적과 연대

자연과의 접촉공간의 조성에 관련된 시책·사업		①	②	③	사업수
개시 연도	1960년대 이전	1	3	0	4
	1960년대	2	6	1	9
	1970년대	15	27	2	43
	1980년대	9	18	6	33
	1990년대	24	35	13	72
	합 계	51	89	22	162

- ① 자연과의 접촉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것,
- ② 부수적으로 자연과의 접촉을 위한 장소를 정비하는 것
- ③ 사업목적 달성의 수단으로서 자연과의 접촉을 설정하고 있는 것

시책·사업의 수를 개시 연도별로 보면, 1990년대의 5년 사이에 시작된 것이 이미 1970년, 1980년대에 시행된 것의 2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연과의 접촉”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사례가 1990년대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이 보여졌다. 이와 같은 증가추세가 주목되는 1990년 전후의 사례를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또한 시책·사업과 관할관청과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 표 4이다. 표 4와 표 2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 1970년대에 보여졌던 “①의 자연과의 접촉” 공간조성의 증가경향은 그 대다수의 사업이 임야청에 의해 계획되어졌던 것으로 자연산림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 건설성에서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관련사업의 진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최근에는 눈에 띄는 양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한 “②자연접촉 장소의 정비”를 중심으로 한 사업이 진행되는 점으로 보아, 도시 내에 있어서 자연과의 접촉을 위한 공간제공에 대한 시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변천특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상공간에 있어서도

표 3. 자연과의 접촉공간 조성에 관한 시책·사업의 사례

명칭	관할관청	연도
환경과 문화의 마을	환경청	1992년
고향생물과 접촉할 수 있는 마을	환경청	1989년
유택합·녹지·경관모델 도시조성제도	건설성	1990년
Eco-Museum 정비사업	환경청	1995년
자연관찰의 숲	환경청	1984년·90년
국립공원 시설정비 (Ecology-Camp)	환경청	1993년
국립·국정공원 시설정비 보조 (Ecology-Camp)	환경청	1993년
자연공원 핵심지역 종합정비사업 (녹지의 다이아몬드계획)	환경청	1995년
고향자연의 길	환경청	1994년
녹지의 교류공간 정비사업	임야청	1990년·94년
건강과 여유의 숲 정비사업 (93년 개명, 풍요로운 숲 조성사업)	임야청	1991년
창조의 숲 정비사업	임야청	1993년
Sea-Site 정비사업	운수성	1995년
녹지와외의 접촉의 마을 정비 특별대책사업	임야청	1995년
체협의 숲 정비사업 (92년 개명, 숲의 학원 정비사업)	임야청	1987년·91년
삼림체험·교류축진 시설 정비사업	임야청	1990년
생기있는 접촉 공원 등 정비계획	건설성	1995년
녹화 증결지구 정비사업	건설성	1995년
자연생태 관찰공원 (Urban Ecology park)	건설성	1987년
자연접촉 모델지구 사업	건설성	1992년
여울(시냇물)과의 접촉 모델사업	건설성	1989년·93년
Eco-Road 사업	건설성	1995년
삼림의 학교 종합정비사업	임야청	1994년
나무의 향기가 나는 길 조성 사업	건설성	1995년
Working - Train	건설성	1996년
자연과 문화·역사의 접촉 回廊 정비계획 (역사 國道)	건설성	1988년
녹지의 고향·접촉 Project	임야청	1994년
접촉의 고향 정비사업	임야청	1994년
가족 Camp 촌의 정비	운수성	1992년
新 마리오 펜손 거점 교류축진 종합정비(접촉 정비)	수산성	1990년

(“都市緑化年報”, “自然保護年覽”, “1990年身近な生きもの調査” 등을 참고로 필자가 작성)

표 4. 시책·사업과 관할관청과의 관계

자연과의 접촉공간의 조성에 관련된 시책·사업		임야청			건설성			환경청			농수산성			그 외의 기관		
		①	②	③	①	②	③	①	②	③	①	②	③	①	②	③
개시 연도	1960년대 이전	1						1								2
	1960년대	2			2											4 1
	1970년대	10	1		1	13	2	1	1						2	9 2
	1980년대	3	2		4	11	4	2	1							3 3
	1990년대	8	3	2	7	23	1	6	2				2	7	3	7 3
합 계	24	6	2	12	49	7	9	5				2	7	5	25 9	
				32			68				14				9	39

- ① 자연과의 접촉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것
- ② 부수적으로 자연과의 접촉을 위한 장소를 정비하는 것
- ③ 사업목적 달성의 수단으로서 자연과의 접촉을 설정하고 있는 것

도시의 가로, 하천, 광장, 공원, 근교림, 농촌 지역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건설성 사업상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 환경청의 경우, “자연과의 접촉”을 적극적으로 계획하는 “①”과 “②”에 해당하는 사례는 나타나고 있으나, “③”에 해당되는 사례는 보여지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환경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관련시책 및 사업의 사례 수는 임야청이나 건설성에 비해 적었으나, 그 사업규모나 시행기간의 범위가 넓은 것 또한 관할관청의 계획특징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이 되는 공간의 특성에 따라 관할관청이 나뉘어지고 있었다.

하천, 연못, 호수, 댐, 도로는 건설성이, 항만은 運輸省과 건설성, 자연지는 임야청과 환경청 등이 주로 관할하고 있다. 그리고 農山村·마을산에 있어서는 농산성, 건설성, 환경청, 국토청, 임야청 등 여러 기관에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다양성과 복잡성을 띠고 있음이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 4. 자연과의 접촉공간 조성에 관련되는 시책·사업의 동향

각 사업의 목적과 시행시기 등을 조사하여 그 동향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9개의 타입으로 분류,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각각의 동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부지내의 녹화, 자연소재의 이용(1960년대 후반)

녹화를 목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물 서식공간의 조성이 목적이라고 하기보다는 녹지를 도입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으로 경관적인 의도가 강하다고 판단되어진다. 이와 같은 녹화에 관한 사례가 많이 나타난 것은 1980년대 전반이다.

##### 2) 수변의 자연회복(1970년대 후반)

1970년대 중반에 호수의 식생복원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하천의 자연회복은 1980년

대 이후에 많은 사례가 보인다. 특히 1990년대에는 건설성의 추천도 있어 각지에서 近자연형 공법에 의한 하천정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사례가 나타나는 곳은 神奈川縣, 東京都, 靜岡縣, 埼玉縣 등 수도권 근교의 하천이다.

### 3) 반딧불, 잠자리 등 특정 種에의 주목 (1980년대 전반)

환경지표가 되는 종을 선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정비의 대상이 되는 종은 대부분이 반딧불과 잠자리이다. 1971년에는 山口縣에서 반딧불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개수가 이루어졌으나, 이와 같은 정비가 활발해진 것은 1980년도 전반기이다. 그 이전에는 조류의 관찰장소가 많았다.

### 4) 식생보호에 의한 생물 서식환경 보호에의 주목 (1980년대 후반)

단순히 녹화를 목적으로 하는 식재가 아닌 지역 자생종의 확보나 동물 서식지로서의 식생 복원 등 생물 서식공간으로서 녹지역할에 주목한 정비가 행해진다.

1980년대 말에서부터 시작하여 1990년 중반기인 현재 다수의 예가 나타나는 추세이다.

### 5) 魚道, 獸道 등 동물 이동로의 확보 (1980년 후반경)

동물행동에 대한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 방법이다. 하천공사에 있어서 물고기 통로 및 개구리 이동통로의 확보, 동물들이 토목시설의 하나인 측구로 추락했을 경우 그 곳에서 빠져나갈수 있는 길의 확보 등이 주된 내용이 된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林道정비 등의 시행과정에서 이와 같은 이동통로에 대한 배려를 동시에 시행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

### 6) 농촌풍경의 부활, 산간마을 환경의 보호 (1983년 -)

옛 일본의 농촌은 가는 곳마다 사람과 생물이 공존가능한 공간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훼손되어 가는 농촌의 구조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정비방법이다. 농촌뿐만이 아니라 산간환경의 복원도 같은 주제로 생각해 나가고 있다. 神奈川縣의 舞岡공원, 大阪의 里山복원과 같이 시민을 참여시킨 형태로 이루어내고 있는 예도 나타난다.

### 7) 생물 서식환경의 창조, 접촉을 테마로 하는 공원정비 ((1984년-)

생물 및 생태계를 배려하여 의도적으로 생물 다양성을 실현하고, 그것을 공원의 테마로 하는 형태의 공원정비가 행해지게 된 것은 1984년경이다. “자연관찰의 숲(환경청)”, “자연관찰 생태공원(건설성)” 등이 주요한 것이나, 그 외에도 기업이 조성하는 공원이나 학교시설 내에 만들어지는 자연과의 접촉장소도 있다. 현재에도 이와 같은 장소의 정비는 계속되고 있으며, 공원 정비방침의 한 조류로서 도입, 진행되고 있다.

### 8) 도시공간에 있어서 생물 서식공간의 구성 (1990년-)

하천이나 공원 등 특별한 장소뿐만이 아니라 도시내의 생활과 가까운 공간에서도 생물의 서식공간을 도입하고자 하는 양상이 보여지게 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중앙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방도시에서도 활발하게 진행 중인 상태이다.

### 9) 그 외

① 인간과 거주공간의 분리 : 인간의 활동장소를 한정함으로써 생물의 서식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木道の 정비 등.

② 해변에 주목 : 바다 속 및 해안의 생태계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인공해변의 조성, 자연석을 이용한 친수형 호안에 의한 海水의 정화 등.

③ 실험·연구 : Biotope 조성이나 생물 서식공간의 보전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연구.

### Ⅲ. 결론

1. 일본에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법규제정의 변환점은, 환경청의 설립시기인 1970년대와, 지구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 추구되는 1990년대이다.

2. 자연과의 접촉공간 조성에 관련되는 시책·사업의 변천동향

지역정비나 시설정비에 있어서 생물 서식공간을 도입시키고자 하는 동향이 나타나는 시기는 1960년경으로 초창기에는 단순한 시설녹화 등의 사례에 그치는 정도이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동물 서식공간으로서의 녹지정비라고 하는 발상으로 이동한다. 1970년대에는 森林 등의 자연환경을 면적으로 보전, 정비하거나 그 곳을 활동장소로 한 거점시설의 정비가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인 1980년대에는 하천이나 도로, 해안 등의 정비가 진행되어짐과 동시에 옛 풍경의 복원, 생물 및 생태계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도시공간에 생물 서식공간을 도입하여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접촉해 보고자 하는 공간조성에 대한 시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변천특징으로 나타났다.

3. 1950년대에서 현재까지의 관련 시책·사업에 대한 각각의 개시시기와 성격을 조사, 분류해 본 결과, 공간조성에 대한 유형을 크게 9가지로 나누었다. ①부지내의 녹화, 자연소재의 이용. ②수변의 자연회복. ③반딧불, 잠자리 등 특정 種에의 주목. ④식생보호에 의한 생물 서식환경 보호에의 주목. ⑤魚道, 獸道 등 동물 이동로의 확보. ⑥농촌풍경의 부활, 산간마을 환경의 보호. ⑦생물 서식환경의 창조, 접촉을 테마로 하는 공원 등의 정비. ⑧도시공간에 있어서 생물 서식공간의 구성. ⑨그 외.

4. “자연과의 접촉”공간의 조성에 관련된 시책·사업의 수는 1990년대의 5년간에 시행되고 있는 것이, 이미 1970년, 1980년대에 시행되어진 것의 2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연과의 접촉”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사례가 1990년대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각 시책·사업과 관할관청과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1970년대에 보여졌던 “①의 자연과의 접촉” 공간조성의 증가경향은 그 대다수의 사업이 임야청에 의해 계획되어졌던 것으로 자연산림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 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건설청에서 “② 자연접촉 장소의 정비”에 주력한 공간제공에 대한 시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다.

### 6. 고찰

일본에서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과 그에 대한 시책 및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이다. 그러나 자연과의 접촉을 중시한, 특히 우리들의 생활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게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성향이라 하겠다.

각 관청에서도 “자연과의 접촉”의 촉진에 관한 시책 및 사업의 실시를 활발하게 시행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장소조성”에 치우쳐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연스럽게 자연과의 접촉을 유도해 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지역정비나 개발에 있어 생물이나 생태계에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1990년 “연방자연보호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Biotope Network의 창조에 의한 야생생물과 공존하는 도시 만들기”의 개념 및 사례가 다수 소개되기 시작한 것에서 비롯된다. 현재까지는 주로 공원정비나 하천정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시점에 입각한 수법이 취해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황폐지나 해안, 건조지 등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 본 연구는 필자가 동경대학 생명과학연



구과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수행했던 연구내용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1996년도는 일본에서도 자연 친화공간에 대한 연구와 수행결과가 쏟아져 나오던 시기로 서점가에서는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대한 코너가 특별히 마련되는 경향까지 보여졌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G-7프로젝트가 시행되기 시작하여 많은 연구진들이 외국의 사례조사와 자료수집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추세이다.

앞으로의 관련연구에 기초자료로서의 활용과 추진방향의 모색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며, 자료수집과 분석에 많은 도움과 조언을 준 일본의 “자연환경보호센터” 眞板 昭夫(Maita Akio) 이사님과 아-스-워크의 海津 ゆりえ(Kaize Yurie)씨에게 감사드린다.

## 참고문헌

- 1) 김영영 (1997), “景觀行政의發展方向に關する研究”, 千葉大學 學位論文
- 2) 김승환 (1989), “일본의 자연환경보전사조 및 관련제도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7(1):1-15.
- 3) 建設省 (1995), “平成 7年度版建設白書”, 大藏省印刷局.
- 4) 建設省都市局 公園綠地課都市綠地對策室 (1994), “公園綠地マニュアル平成6年度版”, (株)日本公園綠地協會.
- 5) 建設省都市局 (1993), “環境共生都市づくり-エコンテイガイド”, ぎょうせい.
- 6) 建設省都市局都市計劃課 (1994), “環境都市のデザイン”, ぎょうせい.
- 7) 建設政策研究會 (1995), “95建設行政ハンドブック”, 大成出版社
- 8) 建設省河川局 (1990), “ふるさとの川をつくる”, リバーフロント整備センター.
- 9) 農村景觀計劃研究會 (1993), “景觀づくり・むらづくり”, ぎょうせい.
- 10) 都市計劃學會 (1991), “都市計劃年報”, 都市計劃協會.
- 11) 杉山 惠一 (1993), “ビオトープ-復元と創造”, 信山社.
- 12) 杉山 惠一, 進士五十八 (1992), “自然環境復元の技術”, 朝倉書店.
- 13) いきものまちづくり研究會 (1992), “エロジカル・デザイン”, ぎょうせい.
- 14) 日本公園綠地協會 (1991), “都市綠化年報(日本公園綠地協會編)”.
- 15) 日本生態系保護協會 (1994), “ビオトープネットワーク(都市・農村・自然の新秩序), ぎょうせい.
- 16) 日本野生生物研究 (1990), “國立公園の集團施設における生態系の多様性の回復(エコアップ)に關する研究”.
- 17) 林野廳 (1995), “平成 6年度圖說林業白書”, (財)農林統計協會.
- 18) 林野廳環境林整備檢討委員會 (1993), “環境林の整備と保全”, 日本造林協會.
- 19) 佐藤昌 (1977), “日本公園綠地發達史(上・下)”, 株式會社都市計劃研究會
- 20) 自然保護年覽編輯委員會 (1992), “自然保護年覽(自然保護年覽編輯委員會編)”.
- 21) 自然保護年覽編輯委員會 (1992), “世界と日本の自然は今(自然保護年覽 3)”, (株)日正社.
- 22) 總理府 (1995), “平成 7年度版觀光白書”, 大藏省印刷局
- 23) 環境廳 (1995), “平成 7年度版環境白書”, 大藏省印刷局.
- 24) 環境廳自然保護局計劃課自然環境調査室 (1992), “1990年身近な生きものの調査”.